

KOBETA NEWS

한국-브라질,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 추진



한국과 브라질이 방송기술 협력과 콘텐츠 교류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분야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프레데리쿠 지 시케이라 필류 브라질 통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초고화질(UHD) 상용화 경험을 활용해 브라질의 '브라질 TV 3.0'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기술 인프라 구축, OTT 등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정립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고, 정책 교류 확대와 구체적 협력 방안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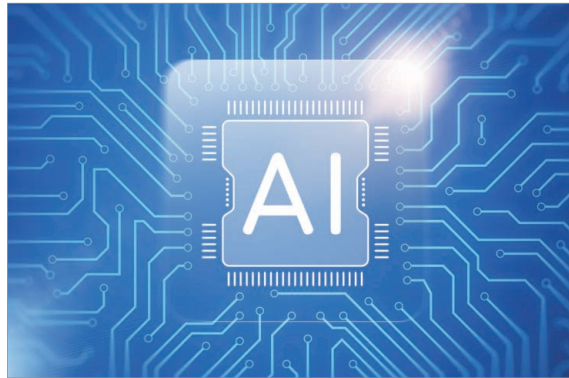
EBS 중소형 광고주 위한 AI 제작 방송광고 개시

EBS는 중소형 광고주의 방송광고 제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AI 방송광고 제작 지원 사업'의 첫 제작 사례를 공개했다. EBS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스카이인텔리전스는 작년 12월 방송광고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형 광고주의 방송광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광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광고 소재 제작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그 협력의 첫 결실로, 중소형 광고주의 방송광고 진입 장벽을 완화한 공공-민간 협력 상생 모델이 본격 가동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작년에는 총 77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총 21편의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제작, 디지털 휴먼, 인공지능 음성·자막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이 실제 제작 현장에 적용되었다. 특히 해외진출형 드라마 시리즈 분야 지원을 통해 <모범택시3>, 비드라마 시리즈 분야 <신인감독 김연경>이 제작 지원돼 동 시간대 지상파 시청률 1위와 높은 화제성을 기록, 케이(K)-방송콘텐츠의 경쟁력과 기술 기반 제작 성과를 입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공지능·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72억 지원



올해는 △ 인공지능 기반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 다큐멘터리 해외진출(K-DOCS) 제작 지원 △ 인공지능 기반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에 대해 5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 제작 지원 사업 공모는 크게 3개 부문으로 △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부문에서 드라마, 예능 등 총 8편의 작품에 대해 최대 10억 원 지원 △ 공익형 방송콘텐츠 부문으로 공익적 가치가 있는 교양 등 총 10편의 작품에 대해 최대 2억 8천만 원 지원 △ 올해 신설된 다큐멘터리 해외진출 제작에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서 접수는 3월 10일 오후 2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 서울예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가 서울예술대학교와 재직자 맞춤형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 11일 서울 상암 스탠포드 호텔 2층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태봉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회장, 윤권수 서울예대 산학협력단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의 혁신 및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기반 산업 혁신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술 콘텐츠 확산,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힘을 합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 기업 및 현업 단체 수요를 반영한 재직자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및 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공동 추진 △ 문화-예술 콘텐츠 기반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운영 △ 지역사회 현안 해결 및 지역 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026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2월 9일 상암 스탠포드 호텔 2층에서 2026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경과와 회계 결산, 올해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을 안건으로 토의했다.

연합회 29대 집행부는 활동 성과 보고를 통해 월간 방송과기술, 방송기술저널, 방송기술교육원, KOBA 2025, KOC 2025, BroadcastTechCON 2025, 방송기술대상 시상식, 방송기술인상 시상식, MOU 체결 등 지난 25년도의 사업 성과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2년간 연합회 운영을 이어갈 30대 집행부가 올해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 사업을 이어가되 올해 10월 체육대회의 실시와 분기별 시상되던 방송기술인상이 상반기 1회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게 된다. 추가 안건에서는 연합회 회칙 개정안 승인이 제안되었고, 회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토의가 이어졌다.



29-2대 성과 보고 중



30-대 사업 계획 발표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동제작 프로젝트 공모 개최

총 5억 원 규모,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생성형 AI 활용 애니메이션 시리즈 발굴

EBS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제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2026년 EBS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동제작 프로젝트'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혁신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참신한 기획력을 가진 신진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 및 지원 자격

공모 대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유아·어린이·가족 대상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기획물이다. 상용화된 적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시도와 참신한 비주얼, 내러티브를 갖춘 작품을 중점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EBS와 공동제작이 가능한 개인, 팀 또는 제작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단, 방송사업자 및 대기업 제외).

선정 규모

EBS는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5개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작품당 8,000만 원(당선금 1,000만 원 및 제작비 7,000만 원 포함)의 제작비가 지급된다. 특히, 선정된 작품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개발되어 2026년 12월 EBS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며, 후반 작업(더빙, 음악, 음향, 믹싱)은 EBS가 직접 담당하여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심사 절차 및 접수 방법

심사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 기획의 우수성(참신성, 독창성) △ 제작 가능성 및 기술 활용성(AI 기술 활용의 적정성) △ 사업 가능성 등이다. 공모 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이메일(animation@ebs.c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공모전 신청서, 작품 소개서, AI 기술 증빙자료 및 3분 이상의 영상(본편의 일부)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6 EBS
02.11- 03.31

생성형 AI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동제작 프로젝트 공모

공모대상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공동제작 기획물

공모자격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EBS와 시리즈물 공동제작이
가능한 개인·팀·제작사

선정
최대 5개 프로젝트

제작비
프로젝트 당 80,000,000원

- 당선금 10,000,000원
- 제작비 70,000,000원

문의/접수
이메일 접수
(animation@ebs.co.kr)

'AI TV 스튜디오' TS-14 오픈

반복 업무 자동화로 제작 패러다임 전환

KBS가 방송 제작 환경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PTZ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AI TV 스튜디오'(이하 AI 스튜디오)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KBS는 지난해 'AI 방송 원년'을 선포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생존과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기술로 '스마트 제작시스템' 도입

이번에 구축된 AI 스튜디오는 원격 제어 PTZ(Pan-Tilt-Zoom) 카메라와 AI 자동화 솔루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AI 시스템이 출연자의 위치와 동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카메라 앵글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트래킹(Auto-Tracking) 기술을 적용해 스튜디오 작업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작은 크기의 PTZ 카메라를 최대 8대까지 동시에 운용 가능해, 기존 스튜디오 대비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또 출연자의 발화 속도에 맞춰 텍스트가 자동으로 흐르는 AI 스마트 프롬프터 사용으로 제작 편의성도 확보했다.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로 제작 효율성과 창의성 제고

AI 스튜디오는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제작진이 콘텐츠의 기획과 창의적인 구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구성과 기획, 촬영 기법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 수준 높은 방송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콘텐츠 중심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KBS는 AI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스, 대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AI 제작 기법을 확



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AI와 ICT 기술을 적극 도입해 방송 제작 현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KBS는 AI 스튜디오 완성과 함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STT(Speak to Text) 기반의 방송 장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연자의 영상 품질을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AI 뷰티터치' 솔루션을 개발해 시청자에게 더욱 질 좋은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조명 디자인과 제어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다.